

보 · 도 · 자 · 료



大宇通信,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출시 -국내 최소형 · 최저가 실현-

- 동급 최고 600 DPI 해상도에 컴팩트한 디자인 돋보여
- 본체의 CPU로 데이터 처리...고성능 PC일수록 인쇄 빨라
- PC화면에 프린터 상태표시...윈도 및 도스에서 자유로운 출력

대우통신(대표:柳基範)은 지난달 전문가용 레이저프린터(DLP-8010)를 출시한데 이어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「원프로 레이저」(모델명:DLP-5010)를 출시하고 프린터 사업 강화에 나섰다.

대우통신이 개인사용자들을 겨냥해 내놓고 「원프로 레이저」는 컴팩트한 디자인에 국내 최소형을 실현. 책상위에 간편하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프린터 중 국내 최저가로서 개인용 레이저 프린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급 최고인 600DPI 해상도를 실현, 문서는 물론 그래픽 출력시에도 선명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컴퓨터의 화면에 나타난 대로 출력해주는 위지위그(WYSIWYG: What You See Is What You Get)기능도 포함돼 있어 소프트웨어 조작이 서툰 초보자들도 실수없이 원하는 인쇄물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.

또한 이제품은 고속 병렬(Parallel)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해 인쇄속도를 향상시켰으며 본체의 CPU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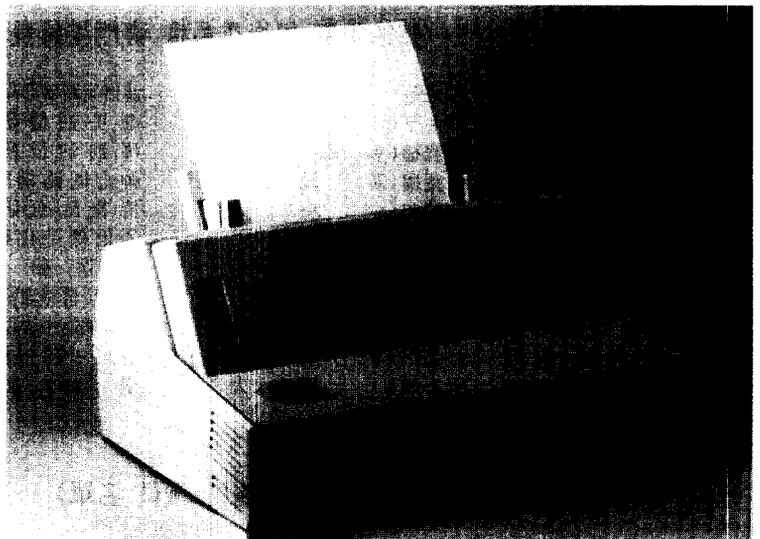
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고성능 PC에서 인쇄속도가 더욱 빨라진다.

특히 병렬인터페이스 부분을 양방향으로 처리해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PC 화면 상에서 프린터 장애나 인쇄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.

윈도는 물론 KS, KSSM 모드까

지 지원해 도스용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49만5천원(부가세포함)

문의:대우통신 홍보과
이정록대리/최병호(전화 589-2053/4)



대우통신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「원프로 레이저」(모델명:DLP-5010) 국내 최소형, 최저가를 실현하고 동급 최대 600DPI의 해상도를 자랑한다.